

國遺事에는 「檀君」이라고 「檀」字를 썼스니 時代의 先後를 보아 「鷄林遺事」의 記를 取치 않을 수 없다. 三國遺事에는 檀이 檀으로 誤字되얏을 지 모르겠스나 鷄林遺事는 그러치 않다.

檀—倍達(即拔達) 闕—那羅 君—任儉 이러케 註釋되어야 한다. 고.

—智異山은 昔日地利山이라 썼스나 「地利」란 「지리」即 「길」이 「길」다는 뜻 智異山의 一名 頭流山이란 「頭流」는 「두류미」即 「鶴」이란 뜻 智異山中에 靑鶴洞이 있다 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말 智異山全體를 靑鶴洞으로 보는 것이 옳다. 智異山의 山頂이 길고 丘鶴이 나래를 퍼드리고 잇는 것과 狀을 注意할 것이다.

—塘津江을 或은 「斗峙」 「豆峙」라 쓰스나 「斗峙」란 「두침이」即 「두성이」란 뜻 塘의 意다—라고.

二月十六日

### ◇佛舍利拜見코

泉隱寺에는 印度에서 歸寂한 李英宰師가 어느 古塔에 서일은 佛舍利가 있다 한다. 꼭 보고 싶다. 그러나 이를

감직할 사람이 出他하고 업스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 업다. 天候가 酷寒하야진다. 日前에 든 威氣가 수히 풀너가지 안는다. 오늘날은 各法堂과 藥師殿을 돌아 보고 多뒸한 房에 終日누어 잇섯다. 翌日午後에 權師 돌아왔다. 佛舍利를 보았다. 작기가 가장(黍)알 같다 (조알보다 는 작고) 이런것세 개가 서로 붙어 品字形으로 되얏다. 한 개라 할 수가 세 개라 할 수가 빛은 無色인 데 잇다 먼土色에 가깝다. 그리고 돌갓기도 하고 뼈갓기도 하다. 우리가 뜻기에는 佛舍利란 五色이 玲瓏하고 祥光이 도는 靈珠로 녀엿더니 實地로 보니 多少不思議의 그 무엇이 업서진다. 그럴 것이다. 舍利란 骨의 뜻 佛陀의 骨이라 도 色身의 것으로는 우리의 것과 같은 것 만일 다른 것이 잇다면 우리가 佛陀의 偉業을 追慕하는 赤誠이 佛舍利로 하여금 超思戴의 祥光瑞色을 날아내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 泉隱寺舍利에 對하야는 英宰君이 印度에서 泉隱寺住持 權東喜師의 게 보내인 편지에 써너 別紙가 다음과 가쳐 잇다.

「住持스님 우리 절에 塔이 업지요 名山치고 하늘이 이를 성스히 녀이사 日前에 眞신사리가 파를 小僧으로 하여금 모시게 하얏습니다. 來歷은 拜謁時에 伏達하 겠사오니 眞신사리 할 모실 經倫하십시요 塔型은 東

土式으로 말고 돌흔한 우리 곳이오니 西土式圓塔으로 모시시다」

또 英宰君의 一九二七年一月六日(月)의 日記를 보면 다음과 가쳐 쓰이엿다.

『B師에 對서 佛舍利三顆를 拜受하엿다. 이는本

一行脚記中에서

寺古塔中에 奉藏하엿섯은 것인데 倒壞後 掘한 中의 一部分이다』라고 釋尊가 신지二千餘年 水陸萬里外 印度의 것을 손에 들고 보는 因緣이 엿다 할 수 업다.

## 生 的 幻 想

都 鎮 鎬

사람의 살림은 언제나 봄이라야 하오리니 나는 봄의 나라를 그리워하니 다꿈에라도요 부드러운 바람의 향기로 유포곡에 平和의女神은 神祕의宮殿을 내려서 大地로 밀너 드는 生命의 붉은 血潮위를 하얀 맨발노성적성적 걸어 옵니다 붉은 薔薇의 花瓣처럼 어엿은 그 입술에서는 生의讚美소리가 微妙한 音湖로 새여 남니다.

아아 봄은 어느듯 大地에 가득합니다 배죽배죽 리울은 푸나무의 새을들이

부드러운 봄과 따뜻한 봄의 가슴에 안기어서 무릉무릉 잘아나는 것들의 속삭임에 참다 못한 꽃봉오리들은 여기저기서 웃음을 깨뜨립니다 황홀한 향기에 제 맘을 짓잡기 어려워 어린 새들은 깃나누고 그늘에서 흠에 데굴며 노래하다가 술녕술녕 흐르는 맑은 시내로 맥감으로 감니다.

아릿다운 소녀들은 나뭇잎을 손에 걸고 두서넛씩 짚을지어 산으로 들노해어 갑니다 안진땀이 꽃을 안아 한송이씩 가슴에 끼로고 蘭草꽃을 비녀삼아서로 안고 춤을 추니

純眞한 그들의 깨끗한 자곡에는  
 고소한 향기가 생의 神秘를 속삭이며 넘쳐흐릅니다  
 사랑의 創造인 나의 나를 나는 한 자 그리워하노니  
 秘密의 宮殿인 나의 가슴에 나를 永遠히 얹어 주시오.  
 潑漣한 宇宙의 新鮮한 精氣를 生命의 金盞에 가득 부어  
 青春의 歡樂을 웃음이 노래케 하여 주시오

### 가을 三題

설사 머리털은 가을의 서리를 들끓이 있을지라도  
 나의 꿈은 항상 붉은 葡萄酒에서 깨지 안케 하여 주시오  
 感情의 붉은 酒精으로 意志의 熾爛을 살려가면서  
 일곱에는 曲線과 直線의 主를 繪를 노실지라도  
 가슴엔 향기롭고 비좁은 薔薇花를 그려 주시오  
 오오 어린 꿈에서 젊은 노래로!

三九〇八・二日

### 表忠의 밤

밤!  
 김촌방!  
 沈黙을 갖다 주는 天使의 밤!  
 表忠의 寢靜을  
 고하고 기쁘드려 노았다.  
 한 줄기 子正 鍾소리

朴 奉 石

꽃잎 시울너간다—  
 나무사이로 山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도  
 한모퉁이 또한 모퉁이  
 限없이 紗라간다.

가을달빛은 法堂에 차는데  
 月坡和尙은 어뎠가고  
 불방아만 쿵—쿵—쿵—

戴藥山中 허리에  
 색도는 저 鍾소리만  
 寢靜의 記憶을 속살 거릴 뿐이다.

### 秋 夜

한 조각 가을달은  
 山머리에 자남직 달너있고  
 악가장은 짝이른 기력은  
 의로움제 도라움제  
 울나가는 一葉片舟도  
 불결시켜 나려온다  
 쪼각달 쪼각배 자취감추나  
 기력에도 잠잠  
 江山도 寂寂

### 달 아!

달아! 가을달아!  
 빛출썰로 빛추어라  
 이마울이나 저마울이나  
 神秘로운 나의 힘으로  
 고하고 기쁘나라로 가고있네

處女の 정가슴 속 쓰러지라도—

달아! 가을달아!  
 빛출썰로 빛추어라  
 東에서 西으로 南에서 北으로  
 悲哀와 自然을 취모라다가  
 詩人들의 가슴속에  
 古세히 맹렬이 焦點으로 빛추어라.

그래! 빛출썰로 빛추어라  
 光明한 나의 힘!  
 神秘로운 나의 힘!  
 오—나는 憧憬한다…… 항상

二九五五・二・二一 日 寢靜日記에서!

